

“高分子 科學과 技術”의 創刊에 즈음하여

자문위원장 沈 貞 燮



高分子 工業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時代의 要求에 발맞추어 1976년 創立된 高分子學會가 올해로 어언 15년의 年輪을 쌓게 되었습니다. 創立 이래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온 본 학회는 이제 그 年輪에 걸맞는 外形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300여명에 지나지 않던 회원수도 이제는 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9백만원이었던 예산도 이제는 약 1억 2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量的인 증가뿐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도 기존 각 대학이나 研究機關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高分子人들의 不斷한 노력과 새로운 젊은 人材들의 參與로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인간 생활이 高度化되고, 한편에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資源, 에너지의 절약과 環境保全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이 昨今の 현실입니다. 따라서, 未來의 고분자 산업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는 고분자에의 심오한 理解와 蛋白質 등 生體 高分子를 통한 生命科學, 응용 분야에서는 高機能性 고분자와 가혹한 여건에 견디는 高性能 고분자 재료 등을 필두로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외는 물론 국내 대부분의 化學 關聯 産業體에서도 석유 및 고분자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활발한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와 연구 기관들에서도 고분자 관련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고분자 물질은 모두 “비니르”라 부르는 일반인에게도 고분자라는 學問의 體系가 잘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도 고분자의 底辺擴大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고분자 과학과 기술”이라는 題下의 잡지를 創刊하게 되었습니다. 晚時之漢이 없지는 않으나, 90년대의 初入에서 이러한 잡지의 誕生을 맞이한 것은 무척이나 뜻깊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폴리머”는 전문 學術 論文誌로, “고분자과학과 기술”은 總說 위주의 잡지로 각각 이 나라의 고분자 분야의 저변 확대에 一助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잡지의 창간에 物心兩面으로 盡力해 오신 임원진과 실무진들에게 衷心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간의 우의와 결속에 배전의 노력을 傾注하여 학회의 발전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